

# 오 만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0

## I. 일반개황

면적	310천 km <sup>2</sup>	G D P	778억 달러 (2014)
인구	3.7백만 명 (2014)	1 인 당 GDP	20,927달러 (2014)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통화단위	Omani Rial (OM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0.385 (2014)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지리적으로는 북동쪽으로 오만 만, 동쪽과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에 면하고 서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접경하고 있음.
-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자원수출로 얻은 수익을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하여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세습군주인 Qaboos bin Said 왕은 1970년 즉위 후 '20세기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현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유지해 오고 있음.
- 수니파 또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믿는 타 이슬람 국가와 다르게 국민의 대다수가 이바디파\*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이슬람교 내의 소수 종파들 중 하나로, 오만과 잔지바르 그리고 리비아, 동아프리카, 튀니지의 저바 섬 및 알제리의 므자브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비석유 부문 성장, 원유생산량 증가로 경제성장 지속

○ 2014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석유부문 투자 확대와 원유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전년(3.9%) 대비 소폭 하락한 3.4%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1%로 둔화될 전망이다.

- 석유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프라, 관광업, 제조업, 농업 부문에 투자한 결과, 최근 3년간 비석유 부문의 성장률은 연 평균 5%대를 기록하였음.

####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악화 전망

○ 오만 정부는 2011년 대규모 시위 이후 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 민심 수습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균형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3.4%의 적자를 기록함.

○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오만 정부는 타 GCC 국가와 같이 국방비, 보조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수입 감소분을 상충하기에는 부족하여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2.1%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sup>e</sup>	2015 <sup>f</sup>
경 제 성 장 률	-1.1	7.1	3.9	3.4	2.1
재 정 수 지 / G D P	-0.4	1.8	0.9	-3.4	-12.1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4.0	2.9	2.1	1.0	0.3

자료: EIU.

## □ 보조금 축소,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 전망

- 2014년에는 정부지출 증가, 임금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상품가격 억제와 식료품 국제가격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1.0%를 기록함.
- 저유가 기조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인해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산업구조 다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 지속

- 정부의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함. 석유·천연가스 부문은 2014년 기준 GDP의 46%,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석유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 부국

-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인 309,500km<sup>2</sup>의 영토에 2014년 확인매장량 기준 52억 배럴의 원유(세계 점유율 0.3%, 세계 25위)와 0.7조 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점유율 0.4%, 세계 31위)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임.
- 원유의 일일 생산량은 유전의 전반적인 노후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감소하여 2007년 713천 배럴까지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유전 개·보수와 새로운 채굴기술 도입으로 2014년 943천 배럴까지 상승하였음.
- 최근 British Petroleum이 160억 달러를 오만의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개발 완료시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 보유

- 오만은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 지역인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 인도, 유럽,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GCC 회원국들 중에서도 지정학적 이점이 큰 국가임.
- 오만 정부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남부에 위치한 Salalah 항구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중동·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허브 항구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다. 정책성과

### □ Oman 2020 경제발전계획 추진

- 1976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시작, 1996년 제5차 5개년 계획의 일부로 “The Vision for Oman’s Economy: Oman 2020”을 발표하여 산업 구조 다각화,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계획을 구체화함.
- Oman 2020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8차 5개년 개발계획(2011~ 15년)이 진행 중이며, 해당기간 동안 780억 달러를 인프라 개발에 투자한다는 세부 계획을 추진 중임.

### □ 산업 다각화 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오만 정부는 2014년 초 산업구조 다각화 촉진을 위한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진흥 등에 약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동 계획에 따라 Sohar港과 수도 Muscat를 연결하는 Batinah 고속도로 (260km) 건설, GCC Railway Project의 일환인 Kuwait-Muscat-Salalah 철도 건설, Muscat 공항 확장 등의 인프라 투자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 GCC 6개 회원국들을 연결하는 1,940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철도를 통한 원활한 물자 운송으로 GCC 회원국간 경제협력이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중소기업 진흥펀드 조성, Duqm · Sohar · Salalah 특별경제지구 조성, 관광산업 개발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석유산업 비중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 □ 자국민의 고용 확대를 위한 Omanization 정책

- 오만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보장, 민간 건설 분야에의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의 일시 중지 등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오만화(Omanization) 정책을 추진 중임.
- 전체 인구의 44%가 외국인 체류자로 자국민의 고용률이 높지 않으며, 특히 민간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은 39%에 달함.
- 그러나 자국민의 숙련기술 부족, 공공 분야에 대한 지원 편중, 외국인 근로자의 저렴한 임금 등의 구조적 문제로 오만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 대외거래

#### □ 서비스 · 소득수지 적자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

- 원유 생산량 증대를 통한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흑자규모는 인프라 건설 기술 도입, 외국인투자자의 프로젝트 수익금 회수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증가로 감소해 왔음.
- 2014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전년(6.5%) 대비 증가한 6.9%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와 수입품 수요 증가세의 지속으로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되어 동 비율이 -3.1%를 기록할 전망이다.

#### □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 외환보유액은 원유 · 천연가스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2014년 말 16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192.1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 재정적자에 따른 총외채잔액 증가 전망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4년 12.5%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5년 저유가 기조 지속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를 대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총외채잔액이 증가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4.3%로 상승할 전망이다.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sup>e</sup>	2015 <sup>f</sup>
경 상 수 지	8,949	7,799	5,117	5,627	-2,213
경 상 수 지 / G D P	13.2	10.2	6.5	6.9	-3.1
상 품 수 지	25,595	26,510	24,587	26,037	14,042
수 출	47,093	52,138	56,429	53,216	39,144
수 입	21,498	25,628	31,842	27,178	25,102
외 환 보 유 액	14,365	14,400	15,950	16,324	19,211
총 외 채 잔 액	9,314	10,128	11,299	10,156	10,271
총 외 채 잔 액 / G D P	13.7	13.3	14.5	12.5	14.3
D S R	1.9	2.1	2.3	2.3	2.3

자료: IMF, EIU, OECD.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Qaboos 왕의 장기집권 체제 속 정치 안정 유지

- 오만의 군주인 Qaboos 국왕은 총리, 외무·재무·국방장관을 겸임하는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자문회의(자문평의회, 국가평의회)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1970년 부왕(父王)을 무혈 쿠데타로 축출하고 즉위한 Qaboos 국왕은 오만의 근·현대화를 주도, 이슬람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온건한 정치·종교 성향을 사회에 정착시켜 오만을 중동의 모범 국가로 만들었음.
- 부의 재분배와 여성의 지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슬람권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성 장관·국회의원이 다수 배출되었음.

- 현재 75세(1940년생)인 국왕의 건강이 최근 들어 악화되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중앙집권 체제가 악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국왕 유고시 국방위원회가 국왕의 유언에 따라 차기 국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Qaboos 국왕이 후계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권력공백과 정정 불안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오만 내 침투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현재 예멘에서 테러 공작을 펼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카에다가 오만과 접경한 예멘 남부까지 점령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오만에서도 급여 인상, 고용률 제고,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요구하는 연속적인 시위가 발발하자, Qaboos 왕은 이에 대응하여 정치·경제 개혁을 단행하였음.
  - 정치·사회 개혁으로는 내각을 교체하고 법 개정을 통해 자문평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으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영 석유회사 임원을 체포하였음.
  - 경제 개혁으로는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 실업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 짧은 시간 안에 사태를 수습하였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2011년 시위 이후 소요사태 없음

-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연속적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Qaboos 국왕의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인근 중동 국가들에 비해 안정된 정치상황으로 소요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회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Qaboos 국왕이 후계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정정불안의 발생과 그에 따른 사회불안 고조 가능성이 우려됨.

### 3. 국제관계

#### □ 영국,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

- 오만은 미국 및 영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과는 1980년 6월 방위협정 체결을 통해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2006년 1월 FTA도 체결하였음.

#### □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 오만은 국제문제에서 중동-서방 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음. 2007년과 2011년 이란에 억류된 유럽과 미국 시민의 석방을 중재한 바 있으며,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에서도 중재자로 활약하였음.
- 타결에 따른 대 이란 경제제재 완화로 오만-이란 간의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능해지고, 이란은 오만의 Duqm 항구를 통한 가스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 주변 국가들과 중립적, 실리적 외교 관계 유지

- 오만은 여타 이슬람 국가들과 달리 인구의 4분의 3이 이슬람 소수 종파인 이바디파(Ibadiyah)인 관계로, 과거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 Dhofar 반란(1962~76년) 당시 이란의 도움으로 반란을 제압한 이후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GCC에도 가입하여 중립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GCC 6개국을 정치·경제적 연합체인 GU(Gulf Union)으로 강화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에 대하여, 오만은 이란과 대치관계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하였음. 또한, 타 GCC 국가들의 IS 공습 및 예멘 반군 공격에도 가담하지 않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리스케줄링 경험 없고 외채상환능력 양호

- 2014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4.9%, D.S.R.은 2.3%로 외채상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며 리스케줄링 경험도 없음.

### 2.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오만에 대하여 2004년 10월 이후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2015년 2월 S&P는 유가하락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오만의 재정 및 대외거래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신용등급을 A-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고, Moody's는 신용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4. 2)	B1 (2013. 1)
OECD	2등급 (2015. 1.)	2등급 (2014. 1.)
S&P	A- (2015. 2.)	A (2007. 1.)
Moody's	A1 (2015. 2.)	A1 (2010. 2.)

\* OECD 등급 원용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 가능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4년 3월 28일 (북한과는 1992년 5월 25일 수교)

□ 주요협정: 항공협정('83), 문화협력협정('94),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03),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05)

□ 2014년 대 오만 교역규모는 57.7억 달러 기록

○ 2014년 우리나라의 대 오만 교역규모는 57.7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중심 11.7억 달러,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 중심 46.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4년 자동차, 전선 등의 수출 증가로 수출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에서 소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음.

<표 4> 한·오만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923,590	1,006,187	1,171,639	자동차, 석유화학, 합섬원료 등
수 입	5,305,683	4,783,308	4,596,803	천연가스, 원유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국 간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대 오만 주요 투자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순이며 투자 실적은 2015년 6월 말 기준 총 44건, 6.8억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 오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내역은 총 8건, 67백만 달러임.

## V. 종합 의견

□ 석유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오만은 최근 저유가 지속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한편, 재정수입 및 상품수출액이 감소하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로 전환하는 등 경제지표는 악화됨.

□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시위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Qaboos 왕의 적절한 대처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왕의 나이와 후계자 문제는 향후 잠재적 불안 요소임.

- 서방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도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외교적 중재자로서 이란과 서방 국가간의 핵협상 합의를 이끌어 냄. 향후에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외채 증가가 예상되나, 2014년 말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14.9%, D.S.R.은 2.3% 수준으로 낮은 점등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

조사역 임민교(☎02-3779-5727)  
E-mail : ymg@koreaexim.go.kr